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J. Korean Home Econ. Assoc.
Vol. 50 No. 8, 65-77, December 2012
http://dx.doi.org/10.6115/khea.2012.50.8.065

www.jkhea.org
eISSN 2234-2818
pISSN 1225-0937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린이집 경험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한국어능력의 조절효과

Effects of Experiences in Child-Care Centers on Communication Abil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Korean Fluency

임양미(Yang Mi Lim)[1] · 박주희(Ju Hee Park)[2]

[1]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2]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mothers' Korean fluency and children's experiences in child-care centers influenced the communication abil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subjects were 600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 enrolled in child-care centers in Gyeonggi province, their mothers, and 350 teachers caring for these children. The data were collected by administrating a questionnaire and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mothers' Korean fluency, number of years children had attended child-care centers, and language guidance provided by child-care center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ll had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general and oral communication 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years that the children had attended child-care center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children's written communication ability, but the mothers' Korean fluency and language guidance provided by child-care center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d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written communication ability. Finally, the mothers' Korean fluency moderated the effects of children's child-care experiences on their communication ability. Specifically, the more fluent the mothers' Korean, the stronger the effects of children's child-care experiences on their communication ability.

주제어(Keywords) :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abil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어머니의 한국어능력(mothers' Korean fluency), 어린이집 경험(children's experiences in child-care centers)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다문화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현행법과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국제결혼가정을 다루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제결혼가정은 211,458 가구로 2007년에 비해 66% 증가한 수치이며[26], 이들 중 대부분(89.2%)은 여성이 결혼이민자인 가정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국제결혼은 전체 혼인 중 10.5%를 차지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35].

Corresponding Author : Ju Hee Park,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3147, Fax: +82-2-363-8877, E-mail: juheepark@yonsei.ac.kr

© Copyright 2012,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과반수(61.9%)를 차지하는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이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수행된 다문화가정 영유아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은 다문화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로 나타났다[20, 31].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출생 후 외모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정이 갖고 있는 경제 · 언어 · 문화적 문제로 인해 원만한 성장과 발달이 저해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은 주로 농업이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맞선을 통해 중국 조선족 또는 동남아시아 여성을 만나 이루어지며[9],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29].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우선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문제로, 한국의 언어예절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정확하지 않은 한국어발음 때문에 자녀의 한국어지도 및 책읽어주기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한다[32].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우리나라와 출신국 문화 간에 양육방법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문화적 갈등을 경험한다[14, 19]. 즉,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므로 이유식 및 예방접종 등의 필수적인 육아정보가 부족하고 주위에 조언을 구할 친척이나 이웃이 없는 경우가 많다[27].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와 자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므로 그 과정에서 좌절감과 불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건강 뿐 아니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결국 자녀의 문제행동 및 발달지연을 유발하게 된다[5].

다문화가정 영유아 발달 중 관심이 집중된 영역은 의사소통 영역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지연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해 왔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표현언어나 수용언어에서 발달지체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고[6, 15, 21], 표현어휘력, 구문이해력, 읽기능력 수준이 일반가정 유아보다 낮았다[11, 37]. 반면 Gu, Moon 외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일반가정 유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9, 27]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의사소통능력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7, 12, 17].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몇몇 연구자들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다문화가정 언어환경과 어린이집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영유아의 초기 언어학습에 대한 어머니의 일반적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1, 2, 8, 10, 23], 다문화가정 언어환경 중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자녀의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으나 이러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11, 15, 37]. 지금까지 수행된 몇몇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이해력 및 표현력과 읽기능력이 우수할수록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재원기간이나 프로그램의 내용 등도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Hwang 외, Lee 외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한 기간이 길수록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수준이 높았다[11, 19].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나 또래와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의사소통능력이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어린이집 재원기간 보다 다문화가정 유아 특성을 고려한 실제적인 언어지도의 중요성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 Chung 외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언어지도를 실시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7].

지금까지 살펴본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한국어능력과 어린이집 경험의 영향을 탐색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두 변인의 영향이 통합적으로 연구되기 보다는 별도로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분야의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단편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제한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영유아는 가정뿐 아니라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의 경험으로부터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해 가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가정 부모의 한국어능력과 어린이집에서의 경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민자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Johansen 외, Radey 외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가족 아동의 유아교육기관 서비스 이용경험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어머니의 학력 및 언어능력 등과 같은 가족변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16, 30]. 즉, 학력과 언어능력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인지 ·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함으로써 학력수준이 낮은 어머니에 비해 유아교육기관의 경험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경험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타문화로부터 이주해온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에 기초해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어린이집 경험의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을 다룬 연구들은 대개 언어병리학적 관점에서 외부 검사자의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반면 다문화가정 유아와 주로 시간을 보내는 보육교사가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보육교사는 일상생활에서 언어지도를 수행하며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보육현장에 필요한 현장밀착형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유아의 어린이집 재원기간,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의 언어지도가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린이집 경험(재원기간,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지도)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어린이집 경험의 상호복합적인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전액지원 등으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어린이집의 영향에 대한 어머니 한국어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어린이집과 가정을 연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함께 제안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차원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결과에 기초하여[11, 15, 37]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을 두 가지 하위차원인 구어능력(듣기, 말하기)과 문해능력(읽기, 쓰기)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각 하위차원에 미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어린이집 경험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의 어린이집 경험(재원기간,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지도)은 유아의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의 어린이집 경험(재원기간,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지도)은 유아의 구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의 어린이집 경험(재원기간,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지도)은 유아의 문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다문화가정 유아 및 어머니 각 600명과 해당 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 350명이었다. 보육교사가 보육하는 다문화가정 유아는 평균 1.6명이었으며, 이들 다문화가정 유아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295명(49.2%), 여아가 305명(50.8%)이었고 연령은 평균 3.9세(표준편차 0.71)로 만 4세(38.5%, 270명)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만 3세(32.6%), 만 5세(14.4%) 순이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조선족)이 193명(3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149명(24.8%), 기타(캄보디아, 태국, 호주 등) 71명(11.8%), 중국(한족) 62명(10.3%), 필리핀 60명(10.0%), 일본 45명(7.5%), 몽골 20명(3.3%) 순이었다. 유아의 어린이집 재원기간은 평균 2.5년(표준편차 1.21)으로 2~3년이 240명(4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5년 188명(31.3%), 1년 이하 172명(28.7%) 순이었다.

보육교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은 민간이 226명(64.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공립 78명(22.3%), 법인 32명(9.1%), 직장 9명(2.6%), 가정 3명(0.9%), 부모협동 2명(0.5%) 순이었다. 보육교사의 평균연령은 32.6세(표준편차 8.45)로 30세 미만이 148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40세 미만이 114명(32.7%), 40~50세 미만이 83명(23.6%), 40세 이상이 5명(1.4%) 순이었다. 보육교사의 학력을 살펴본 결과, 전문대학 졸업이 45.7%(1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년제 졸업(29.1%, 102명), 고등학교 졸업(22.6%, 79명), 대학원 재학 및 졸업(2.6%, 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교사의 과반수(56.3%, 197명)는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및 3급 자격증 소지자의 분포는 각각 40.4%(141명), 3.3%(12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Ministry of Education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기초한 유아 관찰척도'와 표준보육과정 의사소통영역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세부영역 내용 및 수준별 내용을 토대로 의사소통능력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24, 25]. 표준보육과정에서는 각 영역별(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자연탐구, 예술경험) 내용을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맞추어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영역의 수준별 내용을 토대로 의사소통능력척도를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개발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의사소통영역 중 네 가지 하위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구성하는 수준별 내용 중 의사소통능력과 관계없는 일부 내용(예: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듣는다)들을 문항에서 제외한 후 전체 문항을 구성하였다. 선정된 문항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학 또는 보육학 전공 교수 세 명에게 내용타당도 검토를 의뢰하였고 보육교사 여섯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문항들을 제외함으로써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문항은 듣기영역 10개 문항, 말하기영역 13개 문항, 읽기영역 10개 문항, 쓰기영역 8개 문항으로 총 4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내용은 듣기영역의 경우 낱말의 발음 구별하기,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동요 · 동시 · 동화를 듣고 자신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바른 태도로 듣기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말하기영역의 경우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자신의 느낌 · 생각 말하기, 상황에 맞는 언어사용하기, 바른 태도로 말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읽기영역의 문항은 읽기에 흥미가지기, 읽어주는 글 이해하기,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 읽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쓰기영역의 경우 낱말과 문장으로 쓰기에 흥미가지기, 자신의 느낌 · 생각 · 경험 쓰기 등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41~205점[구어(듣기 · 말하기영역)능력: 23~115점, 문해(읽기 · 쓰기영역)능력: 18~9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 의사소통능력 척도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91이었으며, 구어능력은 .92, 문해능력은 .85로 나타났다.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eo 외가 개발한 질문지를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고[33], 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하여금 평상시의 관찰에 기초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은 총 네 개의 문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정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말로 표현하는 정도, 한국어로 쓰여진 글을 이해하는 정도,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쓰는 정도의 내용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4~2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82이었다.

3)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 척도는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7, 22].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 척도는 보육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수준을 고려한 개별적인 교수방법을 적용하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언어습관 및 언어교육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수준을 고려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지도를 수행하는 정도와 관련된 총 5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5~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수준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언어지도를 수행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94이었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1) 연구절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유아의 어린이집 재원기간,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의 언어지도가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가정 유아를 보육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중 다문화가정 유아를 보육하는 곳을 대상으로 우편과 팩스를 통해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설문내용은 보육하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일반특성 및 보육교사의 일반배경,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다문화가정 부모의 한국어능력과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

지도 수행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수된 371부의 질문지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다수 포함된 21부를 제외한 후 총 350부의 질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다문화가정 유아 및 어머니 일반특성, 보육교사의 배경변인,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유아의 어린이집 재원기간,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가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선택한 독립변인 외, 일반적으로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의 성별과 연령을 1단계에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21, 18, 34] 2단계에는 본 연구의 독립변인(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어린이집 재원기간,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을, 3단계에는 유아의 어린이집 경험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생성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이 때, 상호작용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중심화(centering) 절차를 적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 포함된 측정변인인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유아의 어린이집 재원기간,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의 점수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보육교사가 평정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총점의 평균을 5점 척도 문항 평균점수로 전환하면 2.7로서 '보통'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차원별로 살펴보면, 구어능력의 문항 평균점수는 2.9이며, 문해능력의 문항 평균 점수는 2.3점으로 구어능력은 '보통'에 거의 근접하나 문해능력은 '보통' 수준 이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의사소통능력 문항평균 점수를 추가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구어능력의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 = 3.21, p < .05.), 사후검증결과 만 4, 5세아와 만 3세아의 구어능력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교사가 평가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평균을 5점 척도 문항 평균점수로 환산한 경우 2.7점으로 '보통' 수준 보다 다소 낮은 편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유아의 어린이집 재원기간은 평균 2.5년이었으며 조사대상의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개별적 언어지도 실행수준 문항 평균점수는 2.4로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개별적 언어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었다.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어린이집 경험이 유아의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유아의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어린이집 경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구어와 문해능력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어린이집 경험(재원기간,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1단계에 투입된 통제변인(성별과 연령)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어린이집

Table 1.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 = 600)

Variables		Statistics	*M*	*SD*
Children's communication ability	General	3yrs old	2.6	0.49
		4yrs old	2.7	0.59
		5yrs old	2.8	0.70
		Total	2.7	0.58
	Oral	3yrs old	2.7	0.44
		4yrs old	3.0	0.42
		5yrs old	3.2	0.61
		Total	2.9	0.47
	Written	3yrs old	2.3	1.03
		4yrs old	2.3	1.15
		5yrs old	2.5	1.31
		Total	2.3	1.14
Mothers' Korean fluency			2.7	1.26
Number of years children had attended the child-care centers			2.5	1.21
Language guidance at child-care center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2.4	1.05

Table 2.
The hierarchical regression of children's general communication ability

Independent variables \ Dependent variable	General communication ability		
	1st step β	2nd step β	3rd step β
Children's age	.09*	.08*	.06
Children's sex	.17**	.11**	.10**
Mothers' Korean fluency		.43***	.39**
Number of years children had attended the child-care centers		.19***	.17***
Language guidance at child-care center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20***	.20***
Mothers' Korean fluency x Number of years children had attended the child-care centers			.12**
Mothers' Korean fluency x Language guidance at child-care center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16***
ΔR^2	.04***	.31***	.04***
Total R^2		.39	
F		13.67	

* $p < .05$, ** $p < .01$, *** $p < .001$

재원기간,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가 유아의 전반적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β = .43),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수행정도가 높을수록(β = .20), 어린이집 재원기간이 길수록(β = .19)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높았다. 또한 유아의 연령 및 성별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및 어린이집 경험의 주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어린이집 경험(재원기간,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에 따라 유아의 재원기간과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가 유아의 전반적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 변량의 총 39%를 설명해 주었다.

한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에 따라 어린이집 경험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한국어 의사소통수준을 상 · 중 · 하 3개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집단별로 어린이집 경험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회귀계수(β)를 비교하였다.

우선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별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린이집 재원기간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전반적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Table 3 참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기간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전반적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재원기간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전반적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높은 집단(β = .19)과 중간수준 집단(β = .15)에서는 유아의 어린이집 재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문화가정 유아의 전반적 의사소통능력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낮은 경우 어린이집 재원기간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전반적 의사소통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able 3.
The effect of the number of years of children attending child-care centers on children's general communication ability depending on mothers' Korean fluency

Mothers' Korean fluency	β
High group (n = 101)	.19*
Middle group (n = 247)	.15*
Low group (n = 252)	.09

* $p < .05$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별로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 수행정도가 유아의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Table 4 참조),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수행이 유아의 전반적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 수행정도가 유아의 전반적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가하였다. 즉,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높은 집단(β = .23)과 중간수준 집단(β = .17)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개별적 언어지도 수행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유아의 전반적 의사소통능력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어머

Table 4.
The effect of language guidance at child-care centers on children's general communication ability depending on mothers' Korean fluency

Mothers' Korean fluency	β
High group (n = 101)	.23**
Middle group (n = 247)	.17*
Low group (n = 252)	.09

* $p < .05$, ** $p < .01$

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개별적 언어지도가 다문화가정 유아의 전반적 의사소통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어린이집 경험이 유아의 구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유아의 구어능력에 대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어린이집 경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가정 유아의 구어능력의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앞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유아의 연령과 성별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어린이집 재원기간,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는 유아의 구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β = .65), 어린이집 재원기간이 길수록(β = .13),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 수행정도가 높을수록(β = .08) 유아의 구어능력 수준이 높았다. 또한 유아의 연령 및 성별의 영향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및 어린이집 경험의 주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어린이집 경험(재원기간,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은 유아의 재원기간과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 수행정도가 구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가짐을 보여주었다.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구어능력 변량의 총 52%를 설명해 주었다.

한편 연구문제 1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경험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구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문화가정 어머니 한국어능력 수준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Table 6 참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기간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구어능력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재원기간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구어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즉,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은 집단(β = .21)과 중간수준 집단(β = .19)에서는 어린이집 재원기간이 길수록 다문화가정 유아의 구어능력수준이 높은 반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낮은 경우 어린이집 재원기간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구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별로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의 언어지도가 유아의 구어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본 결과(Table 7 참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β = .18)에만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가 유아의 구어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중간

Table 5.
The hierarchical regression of children's oral communication ability

Independent variables \ Dependent variable	Oral communication ability		
	1st step β	2nd step β	3rd step β
Children's age	.12*	.10*	.10**
Children's sex	.09*	.04**	.04
Mothers' Korean fluency		.65***	.59***
Number of years children had attended the child-care centers		.13*	.09**
Language guidance at child-care center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08*	.13***
Mothers' Korean fluency x Number of years children had attended the child-care centers			.14***
Mothers' Korean fluency x Language guidance at child-care center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10**
ΔR^2	.02**	.42***	.08***
Total R^2		.52	
F		11.29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
The effect of the number of years of children attending child-care centers on children's oral communication ability depending on mothers' Korean fluency

Mothers' Korean fluency	β
High group (n = 101)	.21**
Middle group (n = 247)	.19*
Low group (n = 252)	.07

* $p < .05$, ** $p < .01$

Table 7.
The effect of language guidance at child-care centers on children's oral communication ability depending on mothers' Korean fluency

Mothers' Korean fluency	β
High group (n = 101)	.18*
Middle group (n = 247)	.10
Low group (n = 252)	.04

* $p < .05$

또는 낮은 집단의 경우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가 유아의 구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어린이집 경험이 유아의 문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유아의 문해능력에 대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어린이집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가정 유아의 문해능력의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유아의 연령과 성별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가 유아의 문해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구문제 1, 2의 결과와는 달리 어린이집 재원기간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 수행정도가 높을수록(β = .26),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β = .14) 유아의 문해능력 수준이 높았다. 또한 유아의 연령 및 성별의 영향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및 어린이집 경험의 주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의 재원기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 수행정도가 유아의 문해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랐다.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문해능력 변량의 총 19%를 설명해 주었다.

한편 연구문제 1과 2를 위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 수행정도가 유아의 문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Table 9 참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개별적인 언어지도 수행정도가 유아의 문해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상위집단(β = .32)과 중간집단(β = .21)의 경우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지도 수행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문해능력 수준이 높은 반면, 하위집단의 경우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지도가 문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8.
The hierarchical regression of children's written communication ability

Independent variables \ Dependent variable	Written communication ability		
	1st step β	2nd step β	3rd step β
Children's age	.05	.03	.02
Children's sex	.15**	.11**	.10*
Mothers' Korean fluency		.14***	.13**
Number of years children had attended the child-care centers		.05	.03
Language guidance at child-care center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26***	.25***
Mothers' Korean fluency x Number of years children had attended the child-care centers			.01
Mothers' Korean fluency x Language guidance at child-care center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13**
ΔR^2	.02**	.15***	.02**
Total R^2		.19	
F		12.49	

* $p < .05$, ** $p < .01$, *** $p < .001$

Table 9.
The effect of language guidance at child-care centers on children's written communication ability depending on mothers' Korean fluency

Mothers' Korean fluency	β
High group (n = 101)	.32***
Middle group (n = 247)	.21**
Low group (n = 252)	.10

** p < .01, ***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어린이집 재원기간,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가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전반적 의사소통능력, 구어능력, 문해능력)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을 보통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구어능력에 비해 문해능력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부 평가자의 표준화된 언어검사를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의 영유아의 의사소통능력수준이 연령규준에 비해 지연되어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6, 11, 15, 37]. 또한 본 연구결과 제시된 다문화가정 유아의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 평균(2.70점)은 Lee 외가 다문화가정 유아의 전반적 의사소통능력을 유치원 교육과정에 기초한 유아관찰척도(5점 척도)로 교사가 평가한 결과(2.74점)와 거의 유사하였다[18]. 특히 보육교사는 구어능력에 비해 읽기 · 쓰기 능력에 있어 다문화가정 유아가 지연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구문이해력 및 읽기능력 수준이 다소 지연되어 있다고 보고한 Woo 외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37]. 다문화가정 유아의 문해능력의 지연은 학령기 학업지체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3, 4, 28], 보육현장에서 교사는 다문화가정 유아가 다양한 도서에 흥미를 가지고 읽어주는 글을 이해하며 쓰기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 감정을 글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언어지도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실제로 보육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개별적인 언어지도 수행정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유아를 보육하는 유아교육기관 교사 중 절반수준에 가까운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개별적인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Moon 외의 결과와 유사하다[27]. 특히 다문화가정 부모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교육내용이 언어지도 및 한글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언어지도가 보육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모색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27].

한편 본 연구결과 보육교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을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평가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준화된 언어검사를 사용하여 외부 검사자가 평가하는 경우 읽기능력 및 표현어휘력이 일반 초등학생 이하 수준이라고 보고한 반면[37], 다문화가정 어머니 자신은 자신의 말하기, 이해 및 쓰기능력에 있어 보통수준 이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33]. 또한 보육교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을 대체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인식하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거주기간 및 교사의 경력에 따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평가정도가 다른 경향이 있었다[6, 13].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는 선행연구에 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을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게 평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평균경력 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유아를 다루어 본 경험과 경력이 많은 교사가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대상이 연구에 다수 참여한 경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13].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경력은 5년 미만(66.3%)이 과반수인 반면 Jang 외의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경력은 5년 미만인 경우가 30.3%로 경력이 적은 보육교사가 다수 참여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13].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및 유아의 어린이집 경험(어린이집 재원기간,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은 유아의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재원기간이 길수록,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 수행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전반적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높았다. 특히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β = .43)이 어린이집 변인(재원기간: β = .19, 언어지도 수행정도: β = .20)에 비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어머니 영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11, 15, 37].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유아교육

기관 이용여부가 유아의 표현언어 및 수용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Choi 외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6]. 본 연구와 Choi 외의 연구결과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 우선 두 연구에서 적용된 어린이집 변인의 차이이다. Choi 외의 연구에서 투입된 어린이집 변인은 현재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학원 등의 유아교육기관 이용여부 및 이용기관 수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한 기간과 다문화가정 유아를 고려한 개별적 언어지도 경험수준을 어린이집 변인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내용과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현재 이용 중인 유아교육기관 수를 고려할 경우 단기간 이용한 영유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아교육기관경험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해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와 더불어 Hwang 외, Lee 외, Chung 외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어린이집 재원기간과 실제로 받은 교육내용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7, 11, 19].

한편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유아의 어린이집 경험과 의사소통능력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재원기간과 개별적인 언어지도 경험이 유아의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과 관련된 변인과 유아교육기관 선택간의 관계를 통해 설명해 볼 수 있다. 미국 이민자가족 영유아 보육 · 교육기관 이용을 ECLS-K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Kindergarten Cohort)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결혼이민자 가정의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관계적 특징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을 있었다[16]. 대체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존재함에 따라 어머니의 학력 및 한국어능력이 우수한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함으로써 교육기관이 영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6]. 또 다른 관점에서 대체로 이민자 가족 영유아의 취학전 영유아기 기관 서비스 이용과 영유아의 발달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높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의 경험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정 유아보다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더 배가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30, 36].

셋째, 다문화가정 유아의 전반적 의사소통능력을 구어능력과 문해능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두 언어능력에 미치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또는 어린이집 경험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유아의 구어 · 문해능력과 어린이집 경험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조절효과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구어능력의 경우,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 어린이집 재원기간 및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지도 수행정도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β = .65)이 유아의 어린이집 재원기간(β = .13) 및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지도 수행정도(β = .08)에 비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가지는 조절효과의 경우,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재원기간과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지도 수행정도가 유아의 구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반면 유아 문해능력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기간이 유아의 문해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지도 수행정도가 유아의 문해능력에 미치는 영향력(β = .26)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유아의 문해능력과 어린이집 언어지도수행의 관계에 대해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의 문해능력과 어린이집 재원기간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높을수록 어린이집에서의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지도 수행정도가 유아의 문해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유아의 구어능력에 있어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이유는 유아의 구어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2세 이후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2세 정도에 두 단어 문장을 구성하며 그 이후 어휘 및 문장구성능력이 급속도로 발달된다[38]. 특히 언어발달이론을 통해 생애초기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상호작용은 유아의 구어발달에 매우 결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한국어능력수준이 높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일수록 유아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어능력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아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또래 및 교사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어머니 이외에 다양한 사람들과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재원기간 자체가 유아의 구어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개별적인 언어지도(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언어습관 및 언어교육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수준을 고려한 언어지도)를 수행하는 정도가 높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문화가정 유아는 올바른 구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구어능력에 미치는 어린이집 경험의 영향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높을수록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고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부모와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정방문 자녀양육 및 한국어교육지원사업과 가족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예를 들어,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29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도내 여성결혼이민자의 4.8%만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quoted in 22]. 이러한 현상은 대전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대전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 역시 낮았으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가사 및 자녀양육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부족 등이 제시되었다[22]. 따라서 어린이집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예컨데, 어린이집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및 자녀양육 방문교육사업을 다문화가정 부모들에게 소개해주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관련 행사나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지도 수행정도가 유아의 문해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문해능력이 취약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언어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해주고 있다. 선행연구에 기초해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읽기능력은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이하 수준이며[37],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자신의 쓰기능력이 말하기 및 내용파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33]이 있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구어능력에 비해 문해능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으므로 유아의 문해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이 다소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문화가정 유아의 문해능력은 어머니에 비해 어린이집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구어능력은 교사 및 또래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되어 가므로, 어린이집을 오래 다닌 다문화가정 유아의 경우 재원기간 자체가 구어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학습능력과 관련된 문해능력의 경우 다문화가정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언어지도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의 문해능력과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지도 수행정도의 관계에 대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전반적인 한국어능력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지도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추후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해능력(읽기 및 쓰기능력)과 다문화가정 유아의 문해능력 간의 상관계수(r = .40)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구어능력과 유아의 문해능력 간의 상관계수(r = .09) 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해능력에 대한 어린이집의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지도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구어능력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유아의 문해능력 증진을 위해 어머니의 한국어 문해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의 어린이집 경험은 유아의 구어 및 문해능력에 다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 경험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지도가 별도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어린이집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어린이집과 가정을 연계한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그 지원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변인들이 교사를 통해 수집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평정자에 의한 평가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특히 유아의 의사소통능력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평정이 모두 교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후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을 어머니 스스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주관적 평가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비교적 많은 수의 다문화가정 유아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모든 대상이 경기도 지역에만 국한되어 표집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가정은 몇몇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출신국가별로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표집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Ackerman-Ross, S., & Khanna, P. (1989). The relationship of high quality day care to middle-

class 3-year-olds' language performan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 97-116.

2. Carew, J. (1980). Experience and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in young children at home and in day care. *Monograph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5*, 6-7.
3. Chae, H. K. (2008). *The literacy ability and literal home environment of multi-cultural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4. Cho, Y. D. (2006). *A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child-caring support.* The Policy Research Report.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5. Choi, N. Y., Woo, H. K., Jung, H. S., Park, H. J., & Yi, S. H. (2009). Mothers' parenting stres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2), 255-268.
6. Choi, Y. K., Yang, M. S., Doh, N. H., Park, H. W., Lee, J. S., Jeong, Y. K., et al. (2011). *A study on survey and customer-oriented policy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 development.* The Policy Research Report.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7. Chung, C. H., Jung, M. Y., Kim, M. J., Heo, K. A., & Hong, H. J. (2010). A structural analysis on related variables influencing communication competence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1*(1), 23-44.
8. Furrow, D., Nelson, K., & Benedict, H. (1979). Mothers' speech to children and syntactic development: Some simple relationship. *Journal of Child Language, 6*, 423-442.
9. Gu, S. Y. (2007). Qualitative research on the lives children of the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in a child care center and their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5), 95-124.
10. Haith, M. M., & Campos, J. J. (1977). Human infanc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8*, 251-293.
11. Hwang, S. S., & Jeong, O. R. (2008). A study on language characteristics correlation of the children in culturally diverse family environment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17*(1), 81-102.
12. Hyun, J. H. (2010). A preliminary study on the supporting for caring and teaching you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Child Studies, 31*(1), 235-248.
13. Jang, M. L., Jang, H. J., Kwon, M. G., & Ham, Y. S. (2011). *A policy on the multi-cultural child care of early childhood institution.* The Policy Research Report.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4. Jeon, H. J., Min, S. H., Lee, M. Y., Choi, H. Y., Cho, E. S., & Jang, S. J. (2008). *A research on surveys and policy for the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 The* Policy Research Report.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5. Jeong, E. H. (2004). A study on the languag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ly married couple living in an agricultural village.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13*(3), 33-52.
16. Johansen, A., Leibowitz, A., & Waite, L. J. (1996). The importance of child-care characteristics to choice of ca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 759-772.
17. Kim, W. T., & Kwon, Y. D. (2007). A case study of a multicultural child on adaptation and change in a early childhood institut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4*(4), 95-117.
18. Lee, H. K., Seo, H., & Kim, D. R.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in multi cultural famil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6*(3), 1-24.
19. Lee, J. B., Kang, S, W., Kim, H. W., Lee, H. Y., & Seo, Y. M. (2008). *A research on the Educational status about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Based on the families of international marriage.* The Policy Research Report.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 Lee, K. R., & Chung, K. S. (2011). Analysis on trends in children's multi-cultural education research: Based on M. A. thesis and Ph. D. dissertations from 2006 to 2010. *Education & Culture Studies. 17*(2), 5-28.
21. Lee, S. J., Shin, J. C., Kim, H. H., & Kim, W. S.

(2008). A study on expressive vocabulary ability i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Based on K-BNT-C.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17*(3), 95-115.

22. Lim, Y. M., Song, J., Kim, H. G., Choi, M. H., & Lee, H. S. (2011). *The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of multi-cultural child-care programs in Gyeonggi-do*. The Policy Research Report. Suwon: Gyeonggi-do Family & Women's Research Institute.
23. McCartney, K. (1984). Effect of quality of day care environment of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2), 244-260.
24. Ministry of Education. (1995). *The observation scale of preschoolers based on the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Seoul: Ministry of Education.
2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The national child-care curriculum*.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6.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2). *The Statistics of Domestic foreign residents in 2011*. Seoul: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7. Moon, M. K., & Cho, H. J. (2008). *A research on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child-care support.* The Policy Research Report.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28. Oh, S. B. (2005). A case study on the growing of Kosian children and its social environment.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2*(3), 61-83.
29. Park, M. K. (2007). *The traits of the children from the families of multi-cultural backgrounds and the difficulties of the kindergarten teachers responsible for them: focusing on the families of marriage immigr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30. Radey, M., & Brewster, K. L. (2007). The influences of race/ethnicity on disadvantaged mothers' child care arrangement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 379-393.
31. Seo, H. A., & Kim, J. J. (2010). Analysis of research papers about multi-culture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5*, 59-78.
32. Seo, H. J., Koo, H. A., & Lee, H. J. (2009). *A studies on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of Gyeonggi-do*. The Policy Research Report. Suwon: Gyeonggi-do Family & Women's Research Institute.
33. Seo, M. H., Yang, M. S., Cho, H. J., & Jeong, E. M. (2011). *A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 caring and policy*. The Policy Research Report.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34. Shin, Y. J., & Ahn, S. W. (2008). A study of multi-cultural background children's phonological awareness development.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17*(3), 37-53.
35. Statistics Korea. (2010). The survey of population. Retrieved September 9, 2011 from http://www.kosis.kr.
36. Turney, K., & Kao, G. (2009). Assessing the private safety net: Social support among minority immigrant parents. *Sociological Quarterly, 50*, 666-692.
37. Woo, H. K., Juong, H. S., Choi, N. Y., Yi, S. H., & Lee, G. Y. (2009). Mothers' Korean language ability and preschoolers' language develop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Child Studies, 30*(3), 23-36.
38. Yi, S. H., Kwon, M. K., & Choi, I. H. (2010). *The language education of early childhood*. Gyeonggi-do: Gyo-Moon Sa.

접 수 일 : 2012년 10월 4일
심사시작일 : 2012년 10월 9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1월 3일